2018 년 4 월 1 일 "찾아오신 예수님(48) (부활절) 부활의 첫 증인, 마리아"(20:1-18)

<도입>

20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8 절 -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 19-2 절 - 제자들과의 만남; 24~29 절 - 도마와의 만남,
오늘은 마리아와 만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안타까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막 16:1-3 -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그녀는 곧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충격에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상상 밖의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싶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무지함과 무력함이 안타까울 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애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고 싶다고 당장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오신 사람은 당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 그녀는 두 번 돌이켜야 했습니다.
14 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6 절 "마리아가 돌이켜"

이 말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변화하고 무언가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내적인 전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랍오니 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지닌 분인지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힘을 입어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단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힘을 입고 살아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첫번째 조건입니다.

[2] 붙들지 말라

마리아는 마치 아가서 3:1-4 에서 간절히 사랑하는 임을 찾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애처롭게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3:2-4)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 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먼저 붙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방식으로 붙들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속적, 물리적 차원에서 붙들지 않고, 그분이 행할 것을 하시도록 <u>놓아 드리고 바라보는 것</u>이 그분과 참된 사귐의 시작입니다.

왜 붙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육체의 부활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부활의 모든 의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주님과 마리아의 **새로운 부활의 관계**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육체적 차원을 넘어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르심으로 우리의 참된 근원이요 본향이 아버지 집에 있음을 <u>바라보게 하시는 것</u>입니다.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 분명한 특징을 갖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3] 소망이 주는 삶

깨어 있는 삶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붙들어 두려는 자기중심적 옛 방식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하나님 의식, 임재를 구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을 놓아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놓아주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또는 말씀의 생수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말씀의 진수를 만났습니다. 그 때 그것은 붙들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아버지를 향하는 삶이 부활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선한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원리를 갖습니다. 다른 예를 든다면, 내 삶의 직업이나 전공을 찾다가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소유 리스트에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을 향하고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미 주신 좋은 선물들, 가족, 교회, 친구, 전공과 직업, 재능, 명예, 은사, 등... 그것을 놓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내 손에서 조정되도록 하기 위해 붙들지 마십시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늘을 더욱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모든 세대의 당신의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2018 년도 부활절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삶의 방향이 더 선명하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찾고 구하는지요?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나누어 봅시다.

2.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깊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특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나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3.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고 가까이 나아가게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요.